

■ 2025년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 회의일시 : 2025년 2월 25일(화) 14: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원영, 방민호, 서희원, 장마리, 조민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의미 있고, 예술가들의 반응이 좋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사업에 참여한 문학인들과 사업을 진행한 문학기반시설, 문학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반 시민 모두에게서 큰 호응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다. 문학인들에게 이 사업은 '상주작가'라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그 직함에 걸맞는 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작가의 창작 여건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이 사업은 인쇄된 책과 자료로 가득한 도서관·문학관·서점을 '작가'가 있는 생기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며, '작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학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자주 문학 공간을 방문할 기회와 새로운 문학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의 사업이 문학의 창작, 재생산, 소비, 교육, 확산에 다채로운 효과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2025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는 총 130곳의 문학기반시설이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시설유형 별로 보자면, 도서관이 70곳, 문학관이 33곳, 서점이 27곳이었다. 한정된 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총 77곳이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자면, 신청된 기반시설 중 60%만을 지원할 수 있기에 제출된 지원서를 심의기준에 맞춰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심사는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은 총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시설의 여건 및 특성화 수준(30%)', '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35%)', '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 및 기대 성과(35%)'

'시설의 여건 및 특성화 수준'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문학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였다. 문학기반시설은 문학 텍스트를 보관하고 있다고 의미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아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빈번한 활용에 의해 텍스트는 윤택해지고 가치는 올라간다. 두 번째는 상주작가의 창작 여건을 보장하는 적절한 공간의 조성이다. 상주작가의 공간은 직원의 업무실이나 문학시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용공간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세 번째는 문학기반시설이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과 진행 수준이었다. 과거를 보고 미래의 운영을 예측하는 것은 지원서 평가를 위해 고려될 사항이었다. 물론 진행된 프로그램의 경험이 부족한 신설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제안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으로 이런 평가를 대신하였다.

'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한 것은 제안된 프로그램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의 여부였다. 문학기반시설은 그 공간이 위치한 장소성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시민들의 구성이나 요구, 참여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제안 프로그램은 이런 각각의 특성에 맞춰 기획되어야 한다는 것이 심사위원 모두의 공통된 견해였다. 특정한 장르로 구분될 수 있는 상주작가의 특성을 고려하고, 전문적인 동시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 곳에는 높은 점수를 주었다.

'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 및 기대 성과'에서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제안된 프로그램이 상주작가의 창작 활동을 고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작가와 문학기반시설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작가에게 '상주작가'의 경험은 창작을 위한 경제적 보조가 되는 동시에 문학적 창의의 산출을 고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안 프로그램은 '상주작가'에게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다른 하나는 제안된 프로그램이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문학 수요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유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문학적 요구를 반영한 기획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작가와 함께 진행하는 시설 담당자의 노력과 선의에 사업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지원서에 담긴 시설 담당자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열의를 읽어내기 위해 세밀하게 지원서를 읽고, 프로그램의 기획을 평가하고,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노력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것이 상주작가와 문학기반시설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학기반시설의 프로그램은 상주작가를 통해 구체성과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작가의 창작 경험이 시민의 문학적 자산이 되고, 그것이 문학 활성화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필요한 제안에는 시대적, 사회적, 공간적 요구와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하는 것이다. 제출한 지원서가 심의에서 아쉬운 평가를 받았다면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설득력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도서관·문학관·서점은 문학기반시설이란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공간성과 장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이 좀더 발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공간성과 장소성을 가진 문학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문학인이나 문학기반시설, 시민 모두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다. 선정된 모든 기관, 그리고 그곳에서 상주작가로 선정될 문학인들에게 이러한 평가는 금지이기도 하지만 부담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담은 문학의 활성화를 만들어내는 좋은 토양의 조건이기도 하다. 문학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꽃이 되어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란다.

2025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